

한국의 수혈은 언제부터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한마음혈액원 원장, 의학박사/ 김 춘 원

클리는 순서

- ① 혈액이란 무엇인가?
- ② 혈액은 우리 몸 속 어느 곳에서 만들어 지는가?
- ③ 혈액의 역할과 그 운명
- ④ 혈액과 생명의 관계
- ⑤ 혈액형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 것일까?
- ⑥ 혈액형의 종류
- ⑦ 수혈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 ⑧ 한국의 수혈은 언제부터
- ⑨ 매혈과 헌혈
- ⑩ 헌혈된 혈액은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
- ⑪ 헌혈의 적합과 부적합
- ⑫ 수혈로 전파되는 질병

수혈이 우리나라 의료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아무래도 6.25동란 이후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물론 8.15 해방 전인 일제 강점 기간 중에, 대형주사기로 환자 가족이나 일부 특정인들이 제공하는 혈액을 즉석에서 뽑아 환자에게 주사하여 주는 원시적 수혈 시도는 있었다고 하나, 그 성과는 알 수 없다.

이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1884년 미국 공관 촉탁의사로 입국한 알렌에 의하여 서양의학이 소개되었을 때, 그의 의학 교육을 통하여 혈액에 관한 기본지식은 전달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보존혈액에 의한 대량 수혈이란 새로운 수혈개념이 소개되기까지는 다시 반세기의 세월이 필요하였다. 당시까지의 우리나라 의학이라는 것은, 불행히 2차대전 중에 일본을 통하여 접한 독일 의학이 유일한 서양의학이었고,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 측 의학발전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이것이 1940년을 전후하여 미국 시카고를 중심으로 개발된 혈액은행 제도에 대하여도 전혀 문외한이 되었던 연유일 것이다.

문헌에 의하면, 경성의학전문학교 외과의 백○○교수(현 인제대 설립자)가 인혈 혈액형의 유전 및 그 유전자 가설에 대한 비판(1925), 수혈에 대하여 라는 종설(1930), 4년간 시행된 수혈 161례의 검토(1931~1935)라는 논문이 발표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즈음 교수회의 석상에서 수혈의 필요성과 공혈자 제도를 설명하고, 교수회의 승인을 얻어 수혈협회를 경성의전 부속병원(현 서울대학교병원 전신) 외과교실에 두게 된 것이 이 분야 국내 최초의 혈액 기관이 될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1950년의 6.25동란이 우리나라의 혈액사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6.25동란 중인 1952년, 속출하는 부상자들로 급격한 혈액의 필요성에 의해 군에서 혈액고(血液庫)를 설치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6.25 당시 한국군 부상자의 치료를 위해 쓰인 혈액의 거의 전부가 미국 본토에서 공수되어 왔다는 것이고, 이는 종전이 된 1953년 까지 계속되다 이후부터 혈액 원조를 대폭 줄였다.

전쟁의 막바지에 치달았던 1952년 가을, 우리나라 최초의 혈액고가 해군에 의해 창설되었다. 인천 상륙작전 시 최선봉대였던 한국군 해병대가 임진강 전투에서 수많은 부상병들이 발생, 대거 후송되어 왔다. 이에 수혈

용 혈액 확보가 무엇보다 급선무임을 감지하고 혈액고를 해군의 혈액수급의 전초기지로 삼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시기 혈액은 전적으로 매혈에 의존하였고, 매혈의 보상금은 1,000환 정도였다.

육군은 1953년 8월에 수혈부를 창설하였다. 일본 오끼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406의무시험소에서 파견된 Harteny 소령, 양○○와 김○○ 교관 등이 군수혈부 요원(군 의관·의정장교·간호장교)들의 교육을 실시하여, 1954년 2월부터 정식으로 수혈부 업무가 개시하였다.

민간병원은 이보다 늦은 1954년 주한 미8군 산하 제121야전병원에 의사(윤○○박사)를 파견하여 수혈에 관한 수련을 받게 한 후 백병원(현 인제대학교병원)에 혈액고를 설치함으로써 본격적인 수혈의 시대를 열어갔다.

매혈에 의한 혈액수급이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1969년 한국헌혈협회의 발족이 있는 후 국방부는 1972년부터는 매혈에 의한 혈액수급을 적극적으로 억제(훈령218호), 1972년 하반기부터는 완전 헌혈의 시대를 열었다.

1965년 9월 25일 주월 한국군사령부가 사이공에 설치되었으나, 전투에서 발생한 한국군 부상 장병들은 처음에는 미국 본토에서 공수되어온 혈액이 사용해야 했다는 사실이다.

혈액의 원활한 수급은 1970년대 후반부터 정착되기 시작하여, 한국헌혈협회가 창설(1969)되면서 민간 차원의 헌혈운동에 불을 당겼고, 1975년 정부가 주도한 대한혈액관리협회에서 혈액관리와 헌혈운동의 책임을 맡아 이를 본 궤도에 진입시켰다.

이 시기 헌혈예치제도라고 하는 특출한 제도를 개발, 대한혈액관리협회(1975)를 통해 시행함으로써 의료용 혈액수급을 매혈에서 헌혈로 전환시키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고, 혈액원의 시설 개선, 혈액관리기술을 향상시켜 낙후된 우리나라 혈액사업을 현대화시키기에 이르렀다. 1981년 6월, 정부는 혈액사업을 대한적십자사에 위탁, 대한혈액관리협회의 업무를 인수, 현재까지 혈액사업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잦은 혈액사고 등으로 인한 혈액사업의 신뢰도가 추락하자, 2001년 정부는 혈

액관리법을 개정, 대한적십자사 단독의 혈액사업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도 혈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 건전한 경쟁 체제 아래 안정적 헌혈자 확보와 수준 높은 혈액의 정도관리를 꾀하고자 했다.

이에 노동부 산하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는 국내 최초로 민간 혈액기관인 한마음 혈액원을 개설(2002.5.22)하여, 대한적십자와 똑같은 혈액사업을, 작지만 단단하게 실행해 나가고 있다.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2006년 1월 개설허가(제20호)를 받아 현재까지 원활한 헌혈과 안전한 수혈용 혈액제제를 공급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혈액사업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처럼 효율적인 헌혈자들의 관리와 혈액의 질 향상을 건전한 경쟁 관계 속에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